

1/18/15

설교 제목: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전도사

말씀:창 16:1-11

- (창 16: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 (창 16: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새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 주인을 멸시한지라
- (창 16: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 (창 16: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 (창 16:7)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 (창 16: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 (창 16:9)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 (창 16:10)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 (창 16:11)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 각각 85 세, 75 세로 가나안 땅에 산지 10 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분명히 네 몸에서 낳 자가 너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지 10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날부터 아브람은 사라와 함께 소망 가운데 이제나 저제나 하며 손꼽아 기다려 왔는데 아직도 자식 소식이 없습니다.

아브람에게도 사라에게도 참으로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나날이였습니다.

아니 아브람보다 사라는 더욱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자식을 가질 수 있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경도가 끊어지면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사라에게 그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한 가문에 시집와서 자녀를 낳아 그 가문에 대를 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번성시켜야 하는 것이 여성의, 아내의 도리됨은 동서고금을 통털어서 다 마찬가지 불문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칠거죄악이라는 것이 있어 시집와서 가문에 자식을 낳아 주지 못하는 여자는 시집에서 쫓아내도 할 말이 없었던 시대가 그리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인간은 특히 여자는 자식을 낳아 품에 안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저의 할머니님은 자식을 낳지 못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한이 되셨는지 아이를 가질 수만 있다면 별거벗고 청주 시내를 몇바퀴라도 돌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괴로워하던 사라는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자기 나이 75 세, 아브람은 85 세, 아브람이 더 늙기 전에 자신의 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라의 이 한 결정과 행동으로 인해 인류 역사에 엄청난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이 나오는 창 16 장은 아브람과 사라의 인내하지 못한 믿음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선택한 그들의 신앙적인 허물이나 실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사래와 하갈 사이에 벌어진 일로 인한 여인들의 갈등과 고통, 그로 인해 생긴 상처에 관한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원사의 큰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창세기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찮은 여인네들의 마음의 갈등과 고통과 상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시고 그 사건에 개입하고 계신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람? 사래? 하갈?

이들 등장 인물 가운데 1-6 절의 주요 인물, 즉 모든 사건을 이끌고 있는 인물은 사래입니다.

그리고 7 절 이하의 중심 인물은 하갈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래와 하갈, 이 두 여인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지 10 년이 지났음에도 꿈에도 그리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통 속에서 절규하던 사래는 드디어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녀가 꿈꾼 것이 무엇입니까?

(창 16: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히브리어 성경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대신에 '내가 그녀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이다'라고 씌여 있습니다.

즉 사래는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는 것을 통해, 혹 그녀가 자녀를 얻게 된다면, 그로 인해 자기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 수치가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었기에, 사래는 여자로서 참으로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창 16:3) 아브람의 아내 새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년 후였더라

목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아브람이 가나안에 거한지 10 년이 지났을 때 결국 믿음을 못 지키고 실패하여 하갈을 취했다는 투로 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그런 것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던 사래가, 아브람의 아내가, 자기 여종을 아브람에 내어 주면서 겪고 있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KJV)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And Sarai Abram's wife took Hagar her maid the Egyptian, after Abram had dwelt ten years in the land of Canaan, and gave her to her husband Abram to be his wife.

우리 성경엔 '첩'으로 주었다고 번역했지만 그냥 '아내'로 준 것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자신의 몸 중 하갈을 '아내'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압니다.

그런데 사래는 지금 이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래는 지금 그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래가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갈이 임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래가 그토록 바랬던 일이 성취되었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막상 하갈이 아이를 갖자, 사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래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부각된 것입니다.

물론 사래는 그런 자기 상황을 받아 들이고 마음을 추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다. 하나님이 내가 자녀 갖는 것을 막으셨다. 하지만, 하갈을 통해 낳은 아이는 내 자식이고, 나는 그의 어미다. 그는 아브람의 씨가 아니더냐? 그래, 내가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 그녀를 통해 내 아이를 가진 것이다. 내가 아브람의 씨를 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말이 쉽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참담한 심정을 모를 것입니다.

겨우 겨우 마음을 추스르는데 하갈이 자기 마음을 굶는 것입니다.

(창 16: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

주인을 멸시한지라

(창 16: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번에도 히브리 성경과 영어 성경은 이 상황을 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⁵And Sarai said unto Abram, My wrong be upon thee: I have given my maid into thy bosom; and when she saw that she had conceived, I was despised in her eyes: the LORD judge between me and thee.

“그녀가 나를 멸시한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녀의 눈에 하찮은 존재로 보여졌다. 내가 그녀의 눈에 무시할 만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성경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나를 무시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갈의 눈에 별볼일 없는 여자라고 여겨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갈이 대놓고 사래를 멸시했으리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래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것이 나를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같잖게 여기는구나!”라고 말입니다.

물론 하갈도 예전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몸 속에 아브람의 대를 이어갈 후손이 잉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총만감과 자신감이 하갈에게 나타났을 것이며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 있는 사래가 이것을 놓칠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창 16: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설상가상으로 사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사래가 하란다고 하갈에게 덥석 들어갔던 아브람은 이번에도 사래의 하소연에 사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화성에서 온 남자답게 엉뚱한 말을 합니다.

“당신 여종이니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하시오”

과연 사래가 아브람에게 기대했던 대답이 이것이었을까요?

저는 단연코 아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화성에서 온 아브람이니까 아브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아내의 입장을 배려해 준다고 나름대로 한 말입니다.

사래 앞에서 차마 하갈의 편을 들거나 잉태된 아이를 생각해서 참으라고 말하지 못하고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참으로 사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답답한 대답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당신 뿐이요, 우리 우리의 아이를 갖기까지 모든 어려움을 참읍시다. 얼마를 기다려 온 일이에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게 되지 않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나에게도 이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소”

차라리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으련만은.....

남편에게 기대했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래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갈이 사래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갈이 왜 도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래가 자기를 너무 심하게 학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권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불만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야 비로소 불만을 터뜨린다는 말입니다.

하갈이 종으로 있을 때에는 사래가 좀 심하게 대하여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사래는 주인이고 자신은 종이였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여전히 종이긴 하지만 뱃 속에 아브람의 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마땅히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래는 하갈을 향해 일부러라도 더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다”를 끊임없이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 입장에서는 억울해지며 불만이 터진 것입니다.

억울함은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 1) 자기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생각할 때
 - 2) 상대방이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고 느껴질 때
-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 1)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아?”
- 2)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러는 거야?”

하갈은 (1) “내가 누군데, 내가 아브람의 씨를 밴 여잔데, 내가 아니면 너는 자식이나 있어”

- (2) “네가 뭔데? 여주인이면 다야? 여주인이면 여주인답게 자녀를 낳아야지, 너는 석녀잖아?”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례도 똑같습니다.

- 1) “내가 누군데, 내가 아브람의 조강지처야”
- 2)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너는 종이라구, 종!”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정당하니까?

둘 다 옳고 둘 다 정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럴 땐 우리는 이와 같은 갈등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바로 사례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례는 왜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물론 아브람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그것뿐이었다고 믿으시는 순진한 분은 이자리에 아무도 안계실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세워질 것이다”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례는 더 이상 자기의 수치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아브람의 자손을 잇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자기 수치를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들 이 세상 누가 사례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정당한, 누구도 무릎 꿇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하갈이 도망을 합니다.

문제를 부딪혀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로부터 도피하려는 소극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피한다고 문제가 피해집니까?

그런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 때 참으로 놀라운 일, 전혀 기대하지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전개됩니다.

(창 16:7) 여호와와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창 16: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와 사자가 도망나온 하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 길 샘 곁, 바로 애굽으로 내려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묻습니다.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던졌던 물음이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바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여호와와 사자는 지금 동일한 물음을 하갈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래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심으로써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사래의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나 “어디로”에 대한 답이 하갈에게는 없습니다.

도망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고향 애굽으로?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거기에 가면 행복이 있는가?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 하갈에게 여호와와 사자가 신적인 권위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창 16:9)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 손 아래 복종하라”

사래가 하갈을 낮추고자 그녀를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사자는 하갈에게 돌아가서 사래의 손아래에 스스로를 낮추라고 합니다.

너 스스로 아랫자리에 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사래의 여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은 두가지 근원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와 2) 너는 뭔데?

이 물음에 대한 이전의 하갈의 대답은

(1) "내가 단지 여종인지 알아?"와 (2) "네가 여주인이야?"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와 사자는 이 두 물음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1)"하갈, 너는 여종이다." (2) "사래, 그녀는 너의 여주인이다."

사래가 참으로 제대로 된 여주인이라면 여종인 하갈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너는 지금 네 주인 사래에게 돌아가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로 하여금 다시 돌아 가게 하시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기회가 되는대로 다시 다루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것도 다 하갈을 위해서입니다. 어하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니요?, 다시 돌아가면 사래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다시 돌아 갈 수 있도록, 다시 돌아가서 사래의 어떤 학대에도 견딜 수 있도록 충만한 약속을 주십니다.

(창 16:10)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창 16:11)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갈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비단 하갈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평생 석녀로 고통의 세월을 눈물로 보낸 사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만 하갈이 사래보다 약한 자였기에 먼저 만나 주신 것 뿐입니다.

또 이 말씀은 험한 이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누가 맞고 틀리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그 고통을 들으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